

# 『 서울, 유구한 역사와 세련된 현대가 함께 숨쉬는 도시 』

지리교육과 2학년 문승일

## 1.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

출처: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로써,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펼쳐져 있다. 서울특별시의 북쪽 끝은 도봉구 도봉동, 동쪽 끝은 강동구 상일동, 남쪽 끝은 서초구 원지동, 서쪽 끝은 강서구 오곡동이다. 한반도의 0.3%(남한 면적의 0.6%)에 해당하는 넓이로, 남북 간 연장거리는 30.3km이고, 동서 간 연장거리는 36.8km이다.

서울특별시는 1960년 이후 산업화에 의한 우리나라 성장의 중심지였으며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대회,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개최한 대도시이다. 특히 동북아 시대에 서울특별시는 연구개발 및 금융, 물류, 컨벤션 등의 분야에서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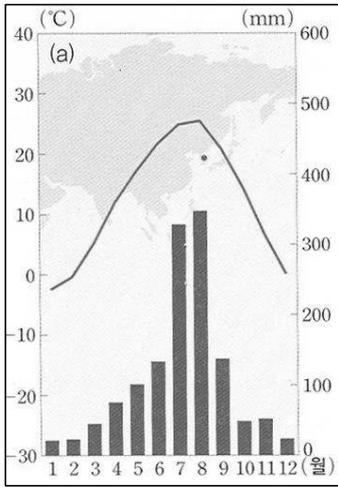
## 2. 지리적 조건

### 1) 지형

서울은 한반도의 등뼈라고 할 수 있는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한북정맥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구릉이 발달하고 주변이 산으로 에워싸인 넓고 평평한 분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서울주변의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등은 웅장하고 수려하여 세계 여러 나라 도시 가운데서도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서울의 도심은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는 한강은 경기도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하나로 모여 동쪽에서 서울로 흐르며, 한강의 남쪽지역은 충적지와 낮은 구릉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2) 기후



〈서울 기후그래프〉  
출처: 기후학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서울은 기후의 측면에서 점이적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겨울철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동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서울은 세계의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열섬(heat island), 도시풍 등과 같은 도시기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강수량을 보면 한강 중상류 다우지역의 분지형 다우지에 속한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겨울철 건계와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형성되는 여름철 우계와의 구별이 뚜렷하며 6~9월 4개월간의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북태평양으

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거나 열대지방에서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장마전선으로 유입될 때에는 1일 강수량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3. 서울의 역사



〈서울의 옛 모습〉

출처: cafe.daum.net/songchonhoi

서울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인 기원전(BC) 4,000년경부터 서울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마한에 속한 54개국 중 하나인 초기 백제 때부터이다. 초기 백제는 한강유역에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생긴 나라인데 세력이 점점 커져서 마한을 정복하고 초기 고대국가인 백제로 성장하였으며 서울은 백제의 수도 '위례성'이 되었다. 삼국 중 하나인 신라는 6세기 초에 고대국가의 기틀을 완성하고 진흥왕 때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백제의 성

왕과 합심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서울을 삼국통일의 중심지로 삼았다. 그 후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옛 백제 땅과 고구려 땅의 일부를 합쳐 신문왕 5년에 새로운 지방행정조직을 만들었는데 전국을 9주로 나누고 5소경을 설치하였다. 이때 서울은 한산주에 속했으나 757년 다시 한양군으로 바뀌었다.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어서면서 태조23년인 940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이 다시 편성되면서 통일 신라 때 한양군이었던 서울 지방은 양주로 바뀌었다. 이후 한양 천도와 개경 재천도가 반복되었다.

1945년 8월15일 광복과 더불어 경성부는 서울이라고 다시 이름이 바뀌고 1946년에는 경기도에서 벗어나 도와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격이 상승되었다. 이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수도로 결정되었으며 1949년에는 서울특별시가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으로 서울의 시정은 일시 중지되었고 부산으로 피난 온 서울시는 1951년 2월 서울특별시 부산행정청의 이름으로 피난 온 서울시민의 구호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953년 휴전의 성립과 함께 정부의 환도와 서울시민의 복귀로 서울시정은 재개되었으며 전후 복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수도로서의 기능을 되찾았다.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상 내무부장관의 감독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들어갔으며, 1963년 1월1일자로 한강 이남의 경기도 일대를 편입, 서울의 행정구역을 확대하여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읽을거리 >

**서울의 지명유래**

서울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한양 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태조가 한양의 둘레에 성을 쌓을 때 성 쌓을 위치를 정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양에 눈(당시 ‘서리’라는 설도 있음)이 내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도읍지의 변두리 주위에 성터 모양의 눈이 쌓여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하늘이 성 쌓을 자리를 정해준 것이라고 크게 기뻐하여 눈 온 자리에다 성을 쌓게 되었다. 여기에 눈이 울을 이룬 곳에 성을 쌓았다는 ‘설울’, ‘서리울’이 ‘서울’로 변한 것이라고 전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국호를 서라벌 또는 서벌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경’ 자를 서벌이라 함은 바로 이때문이다”라고 하여 서울이라는 지명이 신라의 국호인 ‘서벌’에서 연유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 4. 인구분포

1985~2005년 동안 서울시 자치구별로 인구분포의 변화를 보면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시점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는 동대문구로 약 100만 명에 가까웠으며, 강동구와 도봉구의 인구는 8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강남구와 성동구가 7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인구규모가 비대해지자 1988년에 동대문구에서 중랑구가 분구되었으며,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마포구에서 양천구가, 강남구에서 서초구가,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각각 분구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현재와 같은 25개 구가 되었다. 이렇게 행정구역상의 큰 변화가 이루어진 직후인 1995년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자치구는 송파구로 60만 명을 상회하였다. 또한 분구되었던 강남구와 강서구를 비롯한 노원구, 관악구의 인구는 50만 명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단지 노원구의 인구가 송파구보다 많아지면서 60만 명을 돌파했으며, 송파구, 강남구, 관악구, 강서구가 50만 명을 넘고 있다. 반면에 1985년에 20~30만 명 인구그룹에 속하였던 종로구와 중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10~20만 명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용산구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1995년 이후에는 20~30만 명 그룹에 속하고 있다.

<면적 단위: m<sup>2</sup>>

| 자치구  | 면적    | 인구      | 행정동 | 자치구  | 면적    | 인구      | 행정동 |
|------|-------|---------|-----|------|-------|---------|-----|
| 강남구  | 39.55 | 536,031 | 26  | 서대문구 | 17.6  | 361,754 | 21  |
| 강동구  | 24.58 | 479,270 | 21  | 성동구  | 16.84 | 343,929 | 20  |
| 강서구  | 41.39 | 539,673 | 22  | 성북구  | 24.57 | 456,535 | 30  |
| 강북구  | 23.6  | 362,906 | 17  | 서초구  | 47.14 | 400,220 | 18  |
| 관악구  | 29.57 | 526,971 | 27  | 송파구  | 33.89 | 623,267 | 28  |
| 광진구  | 17.05 | 388,659 | 16  | 영등포구 | 24.57 | 410,952 | 22  |
| 구로구  | 20.11 | 419,438 | 19  | 용산구  | 21.87 | 240,723 | 20  |
| 금천구  | 13    | 267,355 | 12  | 양천구  | 17.4  | 489,257 | 20  |
| 노원구  | 35.47 | 633,934 | 24  | 은평구  | 29.72 | 476,843 | 20  |
| 동대문구 | 14.21 | 386,814 | 26  | 종로구  | 23.91 | 181,441 | 19  |
| 도봉구  | 20.8  | 378,166 | 15  | 중구   | 9.96  | 138,798 | 15  |
| 동작구  | 16.35 | 413,204 | 20  | 중랑구  | 18.5  | 438,011 | 20  |
| 마포구  | 23.87 | 383,629 | 24  |      |       |         |     |

출처: 서울시청 (2005년 자료)

## 5.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서울은 인구, 교통, 환경오염, 주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면, 서울은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발표되었고 겉으로 보기엔 이상이 없어보인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은 산정방식의 차이와 주거모습의 변화 등으로 실제 120%~130% 정도가 되어야 적절하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89% 정도로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을뿐더러 자가 점유율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전세나 월세인구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강화가 필요하다. 주택의 양적 부족도 문제이지만 협소·노후·일조(日照)부족·시설미비 등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서울은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많은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도시에 인구가 과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어진 주택들이 많아 주택의 질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앞서 말한 높은 주거비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서울의 교통도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대량수송기관은 통근·통학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급증에 비하여 도로정비율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댓수도 우리나라 자동차의 등록댓수 1200만대의 약1/4인 300만대에 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자동차로 인한 피해가 많다. 특히 아침, 저녁의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으며, 또한 자동차 매연과 소음의 문제점이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50%가 넘는 공장과 밀집된 많은 인구로 인해 자연의 정화 능력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 되는 등 환경 문제점도 심각하다.

### 《 참고 문헌 》

- 손봉균 / 2007 / 한국지리지-수도권 편 /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 참고 사이트 》

-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 강남구 문화관광레저 <http://tour.gangnam.go.kr>
- SH공사 <http://www.i-sh.co.kr>
- 도시철도건설본부 <http://subway.seoul.go.kr>
- 서울 메트로 <http://www.seoulsubway.co.kr>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http://www.smrt.co.kr>
- 교통방송 <http://tbs.seoul.kr>